

상교우서는 “교우님들께 올리는 글”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『상재상서(上宰相書, 재상에게 올리는 글)』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.

선교사제 영입 과정에 참여한 임성실 베드로 관련 자료 (2)

- 신자들의 증언 속에 드러나는 임성실 베드로, 『기해·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』 자료 -

지난 10월호부터 선교사제 영입 과정에 참여했던 신자들 중 임성실 베드로[관찬사료에는 임성룡(林成龍)으로 나오며]에 대한 자료를 정리· 소개하고 있습니다.

임성실 베드로는 김대건 신부가 1845년에 상해로 가서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를 데리고 입국했을 때, 또 1846년 황해로 가서 중국 배와 접촉했을 때 모두 참여했습니다. 1846년 여정 때 김 신부와 함께 붙잡혀 심문을 받았는데 결국 배교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. 그의 부친 임치백[임군집] 요셉 성인은 아들과 연관되어 체포되었는데 김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 순교했습니다. 그후 임성실은 유배형에서 풀려난 뒤 다시 교회로 돌아와 선교사제 영입에 계속해서 참여했습니다.

이번 11월호에서는 저번 호에 이어 임성실에 대한 교회 측 자료 중 시복재판 증인으로 나온 신자들의 증언, 즉 『기해·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』의 기록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.



김대건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임치백 요셉 성인 (탁희성 그림)

... (저번 호에 이어) ...

89회차 시복재판 : 김 마리아의 증언 (1885년 9월 18일) [연구소 역주본 2책 615쪽]

* 증인 김 마리아는 김성서 요아킴의 조카로, 임성실의 외종사촌[외삼촌의 딸이 됩니다. 김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 임성실의 체포와 그 부친 임치백의 순교 사정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.

[5권 8상]

임(치백) 요셉은 죄인(증언자의 고모부인데 그 사정을 대개 아[5권 8하]웁니다. ... 외(교)인(비신재)으로 지내며 물길로 장사하여 생애(생계 유지)하더니 병오년(1846) 봄에 자기 아들 임(성실) 베드로가 배 주인으로 김(대건) 신부를 모시다가 같이 잡힌즉 임 요셉이 그 말 듣고 그곳 관장(官長)은 자기 친구의 자식이니 청하여 무사히 하려고 내려갔다가 (자신)마져 잡혀 서울 포(도)청에 갇혔더니 그때 경문(經文, 기도문)을 배우지 못하여 영세를 받지[하지] 아니하였더라. 어떻게 대답한지 모르되 장하(杖下, 매맞는 도중)에 치명(致命, 순교)한 말을 일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.

91회차 시복재판 : 박 가이아나의 증언 (1885년 9월 23일) [연구소 역주본 2책 643~645쪽]

* 증인 박 가이아나의 증언을 통해 임성실의 체포와 그 부친 임치백의 순교 사정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.

[5권 17하]

[김대건 신부가] 병오년 4월에 배 타고 어디로 가시다가 임성실이와 몇 교우와 같이 잡히시어 포(도)청으로 올라오신 ... [5권 18하] 병오년 5월에 김 신부와 큰아들[임성실 베드로]은 같이 잡혀 먼저 포(도)청으로 들어가고 (임치백) 요셉은 추후로 잡혀갔단 소문을 그해 5월에 들었삽고, 포(도)청에서 문목(問目, 조목대로 심문함) 사연과 형벌 당함과 영세한 것을 알지 못하나 위주치명(爲主致命,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침)한 줄만 아웁니다.

93회차 시복재판 : 원 마리아의 증언 (1885년 9월 26일) [연구소 역주본 2책 673~675쪽]

* 증인 원 마리아는 임성실 집안과 사돈 관계였습니다. 원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 임성실 가족의 체포와 그 부친 임치백의 순교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.

[5권 17하]

병오년에 김(대건) 신부가 임성실이와 다른 교우와 같이 성교[천주교] 일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다가 그 지방 포교에게 잡히시어 바로 서울 포(도)청에 갇히신 말을 들었습니다. ...

[5권 28하]

(임)군집[임치백]이는 천주 계신 줄을 알고도 수계를 아니 하고 집안사람에게도 조당(阻擋, 방해)함은 없으며 교우들을 밍게 보지 아니하고 외(교)인[비신재]이로되 다 착한 사람으로 일컫더라. 죄 [5권 29상]인[증언자]과 사돈인 고로 당면(當面, 얼굴을 마주하고 만남)하여 본 일은 없사오나 혹 삼촌

집에 다니러 올 때에 잠깐 보았습니다.

병오년에 임 요셉(의) 큰아들(임성실)과 김 신부가 함께 잡힌 줄 아오나 부친(임치백) 요셉은 추후로 잡혔단 말만 들었삽고, 만며느리와 둘째 아들 내외 잡히며(임치백) 요셉(의) 아내와 딸은 피하옵고 그 집은 포(도)청에서 나와(자물)쇠로 잠갔더니, 그해 장마에 강물이 들어와 곡식과 세간 의복이 다 썩어 독한 냄새로(인)하여 근처로 사람이 다니기 어렵다(고) 하던 말을 들었습니다.

95회차 시복재판 : 서 야고보의 증언 (1885년 10월 7일) [연구소 역주본 2책 699~703쪽]

* 증인 서 야고보의 증언을 통해 임성실의 체포와 그 부친 임치백의 순교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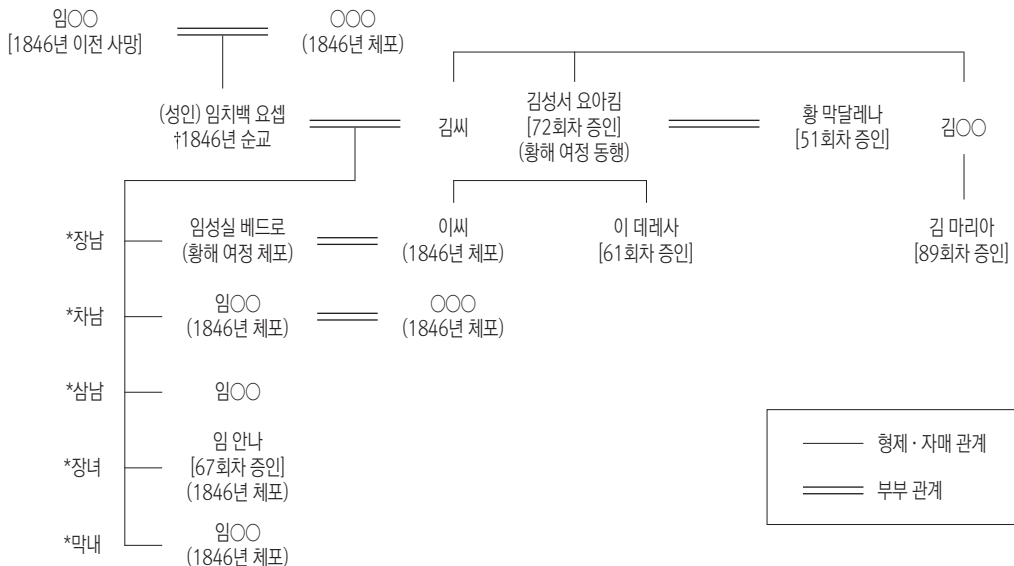
[5권 36상]

[김대건 신부는] 병오년에 임(성실) 베드로와 엄 사공과 다른 교우들과 배를 타시고 성교(천주교) 일로 ... 황해도 해주 백연섬(백령도) 앞에 섰다가 ... 관졸이 바로 첨사도(僉使島)[순위도]로 잡아들였더니 해주 감영에 올린 줄 못 들어어도 형벌을 당한 후 서울로 올라와 포(도)청에 갇히셨을 때 연유를 모르오나 몇 달 후 새남터 법장(法場, 사형장)에 치명하였삽고 ...

[5권 37상]

병오년에 큰아들(임성실) 베드로가 김 신부와 황해도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잡혔단 소문을 듣고 순위(巡威) 첨사(僉使)와 친한 벗인 고로 내려가 청하여 무사히 하려다가(그)마져 잡혀 서울 포(도)청으로 올렸으니 그때 김 신부께 도리를 배우고 영세 성[5권 37하]사까지 받은 후 옥중에서 위주치명[순교]한 말만 들었삽고 ...

▣ (부록) 임성실 베드로의 가계도 - 『기해·병오 시복재판록』을 바탕으로



(사돈 관계) 원 마리아 [93회차 증인]

(황해 여정 동행) 박성철 베드로 [84회차 증인]

(지인) 박순집 베드로 [86회차 증인]

(지인) 박 가이아나 [91회차 증인]

(지인) 서 야고보 [95회차 증인]

▣ (부록) 1846년 황해 여정에 참여한 사람 8명의 명단

[자료1] 『해서문첩록』, 1846.5.20.(양 6.13)

(전거)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역, 『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체포와 순교』, 한국교회사연구소, 2021, 72~73쪽, 76~77쪽.

임성룡[임성실 베드로](23세)의 심문 진술 : 김대건 신부, 소공동 이가[이의창 배난시오], 임성룡 본인, 엄수(嚴秀), 김성서(金性西), 노언익(盧彦益), 안순명(安順命), 박성철(朴性哲)

엄수(44세)의 심문 진술 : 김대건 신부, 소공동 이가[이의창 배난시오], 임성룡[임성실], 엄수(嚴秀) 본인, 김성서, 노언익, 안순명, 박성철

[자료2] 『기해·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』

(전거)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, 『기해·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』 2, 천주교 수원교구, 2012, 358~359쪽[72회차], 534~535쪽[84회차]. 698~699쪽[95회차].

김성서 요아킴[시복재판 72회차 증인]의 증언 : 김대건 신부, 임성실, 엄 서방, 노 서방, 안순명, 박성철 베드로, 김성서(본인), 이 배난시오(신부 복사)

박성철 베드로[시복재판 84회차 증인]의 증언 : 김대건 신부, 임성실, 김성서 요아킴, 엄 서방, 노 서방, 엄 사공, 신부 복사, 박성철(본인)

서 야고보[시복재판 95회차 증인]의 증언 : 김대건 신부, 임성실, 엄 사공 등

*박성철의 증언만 다름 - 다른 기록들과 달리 안순명 대신 ‘임 서방’이 나옴

이석원 프란치스코(연구실장)

소식과 공지

▣ 『교회사학』 (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) 23호, 9월 30일 간행

▣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·간행 사업 소개

-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『안성분당 자료집』(전 2책)과 함께 ‘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’ 『모방 신부 서한』과 ‘수원교구 역사총서 - 순교자 증언록 Ⅲ’을 편찬·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·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.